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6월 28일 (제105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 목사

덕(德)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고, 재력도 막강한 어느 성도가 전화를 해서는 한탄 섞인 어투로 “목사님, 제가 어딜 가서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네요. 나를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없네요.” 한다. 그의 말끝에 나는 “이봐요. 마당밭이면 뭐하겠소. 내가 쉬고 싶을 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 있겠소. 손만 크면 뭐하겠소, 베풀지 못하는 손은 수치스러운 손이 아니겠소. 이 모든 것은 당신 부덕의 소치요. 내가 덕을 쌓지 못한 탓이요.”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통감하듯 “그런가 봅니다.”라고 했다. 덕이 부족하여 남에게 많이 베풀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의 비리를 알고는 채근하자 청지기는 ‘쫓겨나면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어디 가서 살지?’ 하며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해봐도 딱히 할 일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었다. 그러던 그가 ‘바로 이거야’ 하고 무릎을 쳤으니,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 빚을 삭감해주는 일이었다. 청지기인지라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터, 기름 백 말을 빚진 자를 불러 오십 말이라 쓰라 하고, 밀 백석 빚진 자를 팔십 석이라 쓰라 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들이 자기를 기쁨으로 영접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다. 맞다. 물론 불법적인 내용이 다소 있지만, 남에게 많이 베풀면 나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대접받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고 말씀하시며, 이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다. 구약의 정신이며, 대강령이라는 뜻이다.

이제 나를 돌아볼 시간이다. 내가 곤고할 때 선뜻 내게 십터를 제공해줄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덕을 쌓은 사람이고, 없다면 이제부터 덕을 열심히 쌓아야 할 것이다.

개돼지에게 진주 준들 고마워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 없는, 아니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가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차에 걸쳐 이 땅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독설을 내뿜고 급기야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는 그야말로 폭거를 저질렀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를 위협하는 그림

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배려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기 바랍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의 강도와 크기만큼 비판이 물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니 많은 교인들이 내게 물려왔습니다. 그러자 이단이 나타났다고 수많은 돌이 나에게 날아왔습니다. 그 돌에 맞아 아프기

니다. 내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진실을 주려 몸부림치는데 이를 무참히 짓밟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밤잠을 못자며 번민하다 깨달은 것은 진실은 진실한 자에게만 통한다는 것이고, 개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그저 알면서도 속아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큰 그릇이 되어 남을 담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자. 이것이 내가 그날에 받을 상이 아니겠나.’ 작금에 북한이 저러는 것도 나름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는다!” 제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용산 전쟁기념관)

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는다. 또한 다시는 우리가 얻은 자유와 평화를 결코 빼앗길 수 없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묘안을 제시하셨다.

“성경은 믿음 위에 덕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덕이 뭐니까? 덕(德), 큰 덕, 곧 큰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통 큰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그릇이 큰 그릇이냐? 제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속이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은 작은 그릇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의 것을 다 비우고 새 그릇,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부대가 큰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도 하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지요. 그 비판에 맞대응하면 더 큰 비판의 돌이 날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깨닫고는 그 날아오는 돌을 받아서 담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담이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성경 잡언이 무어라고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결국 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성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콜라병처럼 좀 흔들면 화내고 성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7:6)고 말씀하신 걸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재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죽을 마당인데 왜 합의했던 약속을 안 지키냐, 이거죠. 그런데 참 예의도, 절차도 없고, 막 퍼부어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상대에게 감정으로 맞받아쳐봐야 더 큰 소리만 나고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펄펄 끓는 주전자는 식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괜히 손 대봐야 내 손만 탭니다. 수위가 넘었을 땐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게 지혜입니다.

평안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3:1~12)



감정으로 감정을 잠재울 수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이치로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미모나 경제력 같은 거 안 봅니다. 말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훤히 보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도, 교육 정도도, 가정상황까지도 다 파악됩니다.

명견이 무엇입니까? 짓을 때 짓고, 짓지 말아야 할 때 짓지 않는 것이 명견입니다. 명마가 무엇입니까? 달리라면 달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명마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막 내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 쌓은 공적이 순간 무너지고, 싸움이 나고, 구속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저도 본시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는 성격이어서 말의 실수도 많았고, 그로 인해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개도 한 번 두들겨 맞은 구멍에는 안 들어가는 법, 안 되겠다 싶어서 목회 초에 조그마한 자갈을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자그마치 3년 정도 물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바뀝니다. 말에 조금하지 않고 신중하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애당초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 실수도 줄고, 손해도 안 보고, 사람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약3:3).

인생은 말을 타고 달린다

거미줄을 얹어려고 밤낮 빗자루 들고 다녀와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미줄을 만드는 거미를 잡아야 하듯, 말을 잘하려면 그 근본을 고쳐야 합니다. 말의 근본은 바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것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고로 말이 악하다는 것은 생각이 악한 것이고, 말이 곱다는 것은 고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이지요. 절대 악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3~35). 병 속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토마토 주스는 나올 수 없습니다. 병에

오물을 넣어놔으니까 오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란 생각의 외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엮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 쓴 뿌리를 제거해야 근본이 맑아지고 선해집니다. 거기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은 말(言)이라는 말(馬)을 타고 다닙니다. 누에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를 둘둘 말듯, 말이 운명을 굴레 씩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나니 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네 입의 말로 네가 얻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6:2). 다 내가 하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라”(약3:4), 배의 방향이 작은 키에 의해 정해지듯 인생의 향방도 보이지 않는 혀로 인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타가 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나의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가 죽어라.’ ‘빌어먹을 놈’ 그럴 겁니까? 그게 운명이 되는데요. 자식이 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남편에게 ‘당신은 안 돼’라고 말했다면 당신 부부는 ‘안 된다’는 말(馬)을 함께 탄 겁니다. 그러니 사업이 안 되고, 시험에 안 되고,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지요. 미술가가 붓을 들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작곡가가 오선지를 앞에 두고 어떤 곡을 작곡할 것인가 역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며,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 수도, 아니면 졸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예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픈 것은 감정으로 감정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견목회 초,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니 돌 다 아슬아슬한 소리를 내며 고통 받는데

저는 그 고통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

나 파도가 모래사장

에 밀려오니 그렇게 거센 파도도 조용히 모래에 묻혀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한쪽 감정이 사나울 때 맞받아치는 언사는 결국 공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겁니다. 허나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노를 잠재울 수 있는 명약입니다. 그래야 상생하게 되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15:1).

요즘 북한이 우리나라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듣자니 화도 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되받아칠 필요가 없음을, 그렇게 되면 더 큰 악을 낳게 될 것이고, 이는 공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모래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 우리가 참고 감정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진 자가 베풀고, 받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며, 더는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롬12:20). 또한 마태복음 5장에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5:39~42)고 하십니다.

말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저쪽에서 우리의 진실을 잔인하게 짓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틈만 나면 핵을 운운하며 투견처럼 덤벼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저들이란 것들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일랑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롬12:19). 그러니 감정을 격화시키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마5:44). 어쩌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핵보다 무서운 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핵인지 모릅니다. 그걸 제거해야 우리에게 평화통일이 한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살전5:15).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씨일진대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신 인생에 가시나무가 가득하다면 그건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가시나무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약3:2).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더불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복음의 힘

오늘날 우리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또 다른 말은 소식이고, 뉴스다. 21세기는 정보, 소식, 뉴스로 가득 찬 세상이다. 뉴스는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다. 뉴스에 따라 국민이 절망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한다. 라디오, TV, 컴퓨터, 인터넷을 틀면 온통 흥한 소식뿐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흥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시112:7)라고 하였다. 이 세상의 소식들을 뉴스라고 한다. 뉴스는 영어로 NEWS이다. 이 NEWS를 풀이하면 ‘N’은 North(북), ‘E’는 East(동), ‘W’은 West(서), ‘S’는 South(남), 즉 사방에서 온 소식이 뉴스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소식들이다. 그래서 흥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이 행한 일들은 모두 흉하고 악한 소식들이다. 그러나 절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사방에서 온 소식들 중에 한 곳에서 오지 않은 소식이 있다. 곧 위로부터 온 소식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위로부터 온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부패하고 흉한 소식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신 복음이다.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얼마 전 치과에 갔다. 병원 의자에 누워 영상을 찍어보신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전에 금으로 씌워놓은 사랑니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뽑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계속 음식물이 끼서 여간 성가셨던 게 아니다. 이왕 치과에 간 김에 처음으로 스케일링까지 하게 됐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낀 치석을 제거하고나니 뭔가 묵은 때가 벗어지고 입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였다. 치료를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멀쩡했던 사랑니를 뽑게 된 것도, 스케일링을 하게 된 것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물질이 낀 ‘틈’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혹시 나의 믿음에 있어서도 악한 것들이 역사할 ‘틈’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사랑니나 치석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딱히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덮어놓고 살 만큼 사소하고 작은 틈 말이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학교나 직장에서 예배드리려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친구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방황하며 힘들어한다. 그러나 흥한 소식들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온 이 땅의 흥한 소식들을 듣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이 흥한 소식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사91:2~7).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10:19).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삶이 이 땅의 희망이 될 것이다. 복음의 힘은 뉴스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귀하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신혁주 전도사

기본에 충실하자

짧은 역사의 싱가포르(Singapore)가 선진국으로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에 충실하여 바르게 살아왔던 데 그 이유가 있다. 지도자가 바로 살고, 공직자도 바로 살고, 국민들이 바로 살아왔던 것이다. 성경은 교훈한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잠10:25). 의인과 악인은 그 기초가 어떠한에 따라 구별된다. 즉,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람에게서는 각자의 맞는 도리가 있다.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다.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가훈이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교훈이며, 회사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사훈이다. 그렇다

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말씀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어있다.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 그 말씀이 곧 믿음이라고 증거한다(롬10:17). 그리고 그 믿음은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갈 근거라고 말씀하신다(히10:38).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리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제자리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가정의 질서가 없는 것,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 남 탓할 게 아니다. 내가 내게 부여된 도리를 다할 때 하나하나 바로 세워진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복 있는 자의 승리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간 것은 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복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다. 만일 순순히 데려가고자 하셨다면 본인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아비 야곱은 심히 사랑하느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복은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다. 장수들의 비유에 ‘용장(勇將)보다 지장(智將)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德將)이 낫고, 덕장보다 복장(福將)이 낫다’는 말이 있다. 복 있는 장수를 이길 장수는 없다. 복 있는 장수는 피 흘림이 없는 승리를 한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이다. 요셉이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나이 30세에 당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의 실세 총리가 된 것은 그런 승리였다. 그가 그런 승리를 얻은 것은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시편 1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 얘기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법을 주야로 묵상, 곧 되새김하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 안에 ‘소유’는 하나도 없다. ‘어떤 상태’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복은 상태의 결과이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체격으로나 자질로나 부족했다. 그러나 야곱은 복을 택했다. 악졸들은 탓하기를 좋아한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늙었다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면 탓하지 말고 야곱처럼 복을 택하자. 하늘의 상을 택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자.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말은 바꾸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다. 내가 복 있는 자, 즉 복장(福將)이 되면 요셉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신앙은 부딪침에서 시작된다. 말씀이 내 이론 상식과 부딪쳐 깨어지고, 또 깨어져 나갈 때 곤고하고 아프지만 이 과정이 복 있는 사람, 곧 복장으로 변화시킨다. 우리 모두 복장이 되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범사에 형통하기를 소망한다.

임택함 목사

그래도 반드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책만 읽던 이 소년은 학교폭력에 시달려 성형수술을 해야 할 만큼 얻어맞았으며, 부모님은 일찌감치 이혼했습니다. 청년이 되어 떠난 캐나다에서는 머무를 곳이 없어 1년 넘게 잠자리와 일자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환경파괴로 지구가 인간이 거주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그런 인류가 새롭게 거주하도록 화성에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화성까지 날아갈 민간우주선용 로켓 개발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부터 생각하라고 비난했고, 친구들은 로켓 개발이 불가능한 이유를 끊임없이 보내주었으며, 그가 존경했던 닐 암스트롱 역시 그를 비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주행 로켓실험은 3번이나 실패했고, 자본은 바닥났으며, 아내는 떠났습니다.

“왜 굳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타에 “그래도 반드시”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는 바로 얼마 전 민간기업 최초로 우주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오너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며 저는 언뜻 인류구원의 꿈을 꾸고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에덴동산을 잃어버리고 멸망이 예고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유일한 길을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종교계 인사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떤 화가가 환상 중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자기 생각에 매우 고통스

러워하시거나,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너무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하시는 꿈이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었기에, 온 얼굴에 환희가 빛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이 누군가 비웃을 만한 꿈인가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100개의 이유를 만인에게 들었고, 지금 내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꿈인가요? “그래도 반드시”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누군가의 길을 만드는 것,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은 결코 쉽지도 않고, 많이 외로우며, 늘 고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으로 인해 누군가는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또 누군가는 당신의 빛나는 얼굴로 인해 당신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람은 영벌의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뒤에 깨달아서는 늦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노후를 준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사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녀가는 소풍이기에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살아가자는 내용의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의 시처럼 인생이 소풍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

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인생을 비유한다면 소풍이 아니라 출장입니다. 출장은 다녀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활동에 따라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포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장 기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보내신 분이 부르시면 지체 없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로 돌아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은 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변하지 않는 것

:: 영생에 이르는 길 ::

2012년도에 미국의 소셜미디어업체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아이폰용 사진공유앱을 10억 달러(1조 2천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미 당시에 페이스북은 2009년부터 세계 3년 연속 1위(2017년까지 8년간 1위)의 소셜미디어로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페이지로 사용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필요 없는 업체를 사는지 의문이었으나, 인스타그램은 2016년 11월에 5위로 경총 뛰어오르며 현재까지 유튜브와 앞치락뒤치락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소셜미디어의 흥망성쇠가 젊은 층의 선택에 따라 주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최근 서비스가 종료된 싸이월드는 한국에서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여기서 90년대 생으로 넘어가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주 사용 매체가 되었고, 최근 2000년대 생들은 ‘틱톡’이

라는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어플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각 세대가 이용하는 매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서로를 알기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유행은 주된 사용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진 하나에 글을 길게 쓰던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에서 가벼운 사진을 올리고 짧은 글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영상으로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틱톡까지 점점 감정이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변화해왔습니다.

분명 글을 길게 쓰고 읽으면서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어른들은 짧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젊은이들에게 편찬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진심 어린 충고보다 직접적으로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훨씬 효과가 빠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서 발견된 ‘요즘 젊은 애들 버릇없

어.’라는 고문서가 말해주듯, 예나 지금이나 윗세대와 아랫세대와의 표현방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변함없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젊은이 나이가 든 분들에게나 너무도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다른 어떤 표현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랑(요14:18), 여인이 그가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놀라운 사랑(사49:15~16)은 다른 어떤 말로도, 어떤 신세대의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저 그 사랑에 할 말을 잊을 뿐입니다.

김대화
realdialog@naver.com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래전 많이 사용되던 정(情)을 강조한 제과 제품의 광고 음악이다. 그저 바라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그 가사처럼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을 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마음속 바람과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 나를 사랑하면 혹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그걸 꼭 말해야 하나’ 하는 잘못된 생각이 화해도 가로막는다.

말을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게 되면 감동도, 기쁨도 줄어준다는 이유로 말을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 지속하고 싶은 관계일수록 같은 말을 잔소리처럼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을 해주는 편이 좋다. 특히 보편적 사고방식이 다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더욱 그렇다.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에스겔 36:37).

사랑과 감사,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입으로도 전해야 마음이 통한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에는 지나침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은 망설임 필요 없다. 우리 사이에 당연한 것을 기대하다 나중에 섭섭해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다만, 그대의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처럼 아름답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10).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